



전북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 청년 문화학교 운영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지난 2일과 4일 2회에 걸쳐 '2024 찾아가는 양성평등 청년 문화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남원청년마루 '청년 도전 지원사업'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성평등 강사로 위촉된 김은혜·박진아 강사를 초청해 '나답게, 함께 살아가기', '성평등 공존자수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공동체 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언어·태도·행동 등을 탐색하며, 성평등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건강한 간식 만들기 운영

전북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숙)가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프로그램은 '건강한 간식 만들기'라는 주제로 편식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선호하지 않는 채소를 선정, 특정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편식 예방을 위해 부모·어린이들이 선정한 채소를 직접 만져보는 오감체험 활동을 진행, 채소를 이용한 머핀 만들기 등의 요리 체험활동 시간도 가졌다. /정은성 기자



정읍시 보건소·아산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정읍시 보건소는 4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째주)'을 맞아 정읍아산병원과 함께 '자기혈관 숫자알 가래드서를 캠페인'을 진행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정읍아산병원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협진, 협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주는 건강부스를 운영한다. /정은성 기자



한국나눔연맹, 정읍시에 56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사)한국나눔연맹이 정읍시 저소득 가정을 위해 5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3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한국나눔연맹 임정의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된 물품은 쌀 1000포(10kg), 라면 1000상자, 초코파이 1000상자 등으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한국나눔연맹과 시는 2021년 설 맞이 라면 500박스 기탁을 시작으로 연을 맺은 후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통시장서 만난 명절 따뜻한 온기

최병관 행정부지사, 익산 서동시장 방문해 소비 촉진 위한 장보기·명절 인사 전해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익산 서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참여해 명절을 앞둔 서동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서동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익산의 대표 시장으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일 진행된 장보기 행사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주요 성수품 물가동향과 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상인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가 최근 발표한 차례용품 품목별 가격 조사를 살펴보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28만7,100원으로 조사되는 등 지난해 추석보다도 9.1% 늘어난 상황으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고물가 상황까지 겹쳐 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가를 꾸리는 도민들의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과 일자리 민생경제과 관계자들이 함께

서길봉 서동시장 상인회장은 "불경기로 인해 상인들이 명절 대목을 놓칠까 걱정이 컸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안도감과 기대감을 주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해년보다 이른 추석과 기상 변수로 인해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통시장에서만큼은 우리 도민들이 여유를 느끼며 명절을 맞이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도민과 상인 모두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날 장보기 행사서 구입한 과일 등을 익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임마누엘 노인복지센터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추석 명절맞이 지구대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제 신봉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과 치안 협력단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형석 김제경찰서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장 경찰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연주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현장 경찰관 4명과 치안 협력 단체원 3명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협력과 소통이 치안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표창을 받은 양이나 순경은 "경찰관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 금만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4일 금만농협(조합장 최합순)에서 제4회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과 돌보기 지원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협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날 왕진버스는 3개 읍면(만경·성덕·청하)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예수병원(원장 신종식) 의료진 2명이 무료검진과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아이오메이오에서 구강검진과 교육을 다비치 수송업체에서 검안·돌보기를 지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남원시, 시청 로비서 중증 장애인생산물 판매 행사

남원시는 4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중증 장애인생산물 판매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생산물 판매사업 주관으로 진행해 장애인 생산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구매촉진, 판매 확대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도내 20여 곳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명절맞이 기획 선물세트, 사무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했다.

남원시 장애인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생산물 판매가 활성화되고, 장애인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도통동 지사협, 착한 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신자, 민간위원장 서덕교)는 4일, 고죽동의 석성기업(대표 강태균)에 착한가게 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일 매출의 일정액 (월 30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복지사가 자체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태균 대표는 "작은 마음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이번 기부가 기부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서덕교 위원장은 "도통동에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정읍시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을 기념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사회복지문화제'를 개최했다.

시가 주최하고 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운용)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했다.

올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예년과 달리 이틀에 걸쳐 1부는 기념식 및 문화제로, 2부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한마음대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 3일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9개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의 개회 선언, 사회복지사 윤리선언문 낭독,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내빈들의 덕담 릴레이가 이어졌다. 기념식 후에는 초청 공연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재능 공연이 이어져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4일 진행된 2부 행사는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민간 복지사와 복지직 공무원 200여 명이 한마음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 민간 협력을 통한 정읍



시 복지 발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18회 진안군사회복지 한마음대회 열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아 진사협)는 4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제18회 진안군사회복지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한마음대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해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해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전충성 군수, 전용태 도의원, 진사협 임직원과 회원,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좋은 이웃들과 케어뱅크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 진행에 도움을 줬다.

행사는 국민의례, 송은 일꾼 표창, 대화사, 축사에 이어 재즈 공연팀 디아몬드를 비롯해 다양한 축하공연들이 이어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꿈앤꾸르는 카페와 주민도움센터, 좋은 이웃들, 케어뱅크 홍보부스가 마련됐다. 송은 일꾼 표창은 군수상 이만나(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진안군의회 의장상 이은경(주천지역아동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성백(장애인종합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김성준(청소녀수련관), 전북특별



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상 박혜라(노인복지관),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 박순순(진사협 봉사자), 무진장사회복지협의회장 최용섭(환마실)씨가 수상했으며, 쌍봉사보경스님(진사협)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특별상을 수상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주대 방사선학과, 에너지·원자력 현장 교육 참여

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 3~4학년 학생 40명이 지난 8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2024년 에너지원자력 현장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매년 전국의 일반국민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관련 전문가 특강, 조별 토론 원자력 발전 시설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자력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주제로 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운과 특임교수의 특강에 이어 지속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의 상상과 실현 방법,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고리 3호기의 내부 시설을 견학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심병후(3년) 학생은 "방사선학과와의 무한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방사선 안전 전문가로 성장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책임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지현 교수는 "의료 분야를 넘어 원자력 산업의 실무적인 인재를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